의인의 믿음과 위험한 부흥

(하박국 3장 1절~19절)

1. 시기오놋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5.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6.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의인의 믿음과 위험한 부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의인의 믿음과 위험한 부흥’
제목을 좀 더 풀어서 말해보자면 “의인의 믿음이 열망하는 위험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부흥으로 역전하라”는 등등의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흥에 대한 갈망이 참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형통과 성공과 번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침체되었던 신앙이 다시 활성화되는 영혼의 부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흥은 구하면 구할수록 바람직한 것이고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부흥의 개념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이 부흥이 너무나도 낯선 개념입니다. 과연 이런 식의 부흥을 갈망해도 되는지, 정말로 부흥이 일어나도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부흥을 주제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낯선 부흥의 개념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성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문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의인의 믿음이 바라는 부흥은 참으로 위험해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의인의 믿음이 낯설고 위험한 부흥을 바라게 되는지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장과 2장을 통해 보았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시작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 왕국 유다의 사회 내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민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웃을 핍박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은 하박국 선지자를 우울하고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형통을 다 보고 알고 계심으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선민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또한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심판의 이유가 제시되며 의인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본 2장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언급되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의 핵심을 드러내는 말로써 인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유의 반대에 서있는 마음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을 보면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자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이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만은 히브리어 “우펠라”로서 부푼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끝없이 착취하고 정복하여 재물을 긁어모으고 그것을 유지하여 안정된 삶을 살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열매로써 바벨론은 전쟁을 수행했고 거대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즉 마음이 부푼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대해 희망과 기대에 차서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써 의인의 반대에 선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마귀의 거짓말을 진리로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직함이 이에서 비롯됩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이 세상에서도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돈, 건강, 권력, 명예, 영토 확장 등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확신 위에서 마음이 부풀어 세상에 대해 희망과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교만하고 거짓된 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한결같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과 다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 한결같은 의욕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아무런 희망과 기대를 하지 않고 세상을 대하는 의인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흥에 대한 갈망입니다. 세상에 대한 의욕이 없는데 부흥을 갈망한다니 얼핏 모순되게 들립니다. 다만 이 부흥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의미로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낯설고 위험한 부흥입니다.

본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께 대한 소문'이란 주로부터 내게 전해진 정보를 의미합니다. '주의 일'은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바벨론 또한 멸망을 당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일은 선민의 나라가 망하는 것인데 이를 부흥하게 해달라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흥은 히브리어 "하예후"로써 살게 하다는 뜻의 동사인 "하야"의 명령형입니다. 따라서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을 직역하면 '주의 일이 살게 하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남 왕국 유다의 멸망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안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 20여년이 지난 뒤에야 유다는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하던 시대에는 이 멸망은 유다 사람들의 의식 안에서는 죽어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의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부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사뭇 다른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이란 개인이나 단체나 대동소이하게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양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부흥의 모습은 이러한 양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던 하나님의 뜻이 똑똑히 보고 들리고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담겨져 있던 남 왕국 유다의 멸망 계획이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비유된 교만과 거짓된 악인의 대극 점에 있는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바로 이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나고 나타나는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결코 침체되었던 국면이 활성화되는 것이나 적은 숫자에서 많은 숫자가 되는 것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영혼의 침체에서 활성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언급한 부흥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전혀 알지도 의식하지도 못했던 죽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인지되고 확인될 수 있게끔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2절 하반부를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부흥과 진노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부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민의 나라가 이방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흥해야만 하고 나타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긍휼을 간구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과 같은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토록 위험한 부흥을 갈망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망하는 모습입니다만 이것이 의인에게는 부흥이 됩니다. 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인에게는 부흥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부흥하기를 열망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남 왕국 유다를 진멸시키는 것도 부흥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는 의인이 이러한 부흥을 견딜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긍휼을 간구한 것이고 부흥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의 준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부흥이란 사람들의 마음에서 죽은 것과 같았던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던 계획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본문에서처럼 남 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누구도 왕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없다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한편 좋아할만한 일이 부흥으로 일어난다면 이 세상의 상황에 취함으로써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부흥은 일어나야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 마음의 준비로써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막연히 부흥을 열망해왔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 본문 3~4절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2절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

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셨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시던 때를 떠올리며 그 심경을 자신의 마음에서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 왕국 유다에서 일어나는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 괴로워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현실이었고 과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세상에 대해 부푼 마음을 제거함을 통해 하나님을 현실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로미오가 줄리엣을 향해 "오, 나의 태양이여!"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도 첫 번째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하고 최우선적인 현실로 느끼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부흥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느낀 감정이 16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죽은 것과 같았던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었던 계획이 부흥하며 나타날 일들을 실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은 단순한 공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무시무시한 상황이 이 땅에서 벌어질 것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선적인 관계에 몰입해 있었기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고백이 17~19절입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라고 하였습니다. 삶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땅의 상황을 떠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삼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18~19절을 보면 그렇게 하늘나라가 임한 마음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를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면 에베소서 2장 6절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과정을 생각해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강한 현실감으로 느껴지는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던 중 세상에 대해 부푼 마음

을 죽이며 의인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와 희망이 제로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 개인과 연관 되어서는 이 세상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아갈 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기대와 의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죽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마음에서 강렬한 부흥을 기도하게 됩니다. 비록 그 뜻이 조국이 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노라는 절대 평강의 자리로 몰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은 내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부풀었던 교만과 부정직한 의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희망과 기대와 의욕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열성과 갈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이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위험한 부흥을 거침없이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생활화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박국 선지자의 출발점으로부터 의인의 믿음에 이르고 부흥을 간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절대 평강의 자리까지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경을 거스르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땅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함으로써 하박국 선지자의 절대 평강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부흥을 갈망하는 자리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